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혁명이후사회의영속성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혁명이후사회의영속성
1890 년 10 월

kr.theanarchistlibrary.org

1890 년 10 월

자주 논의되는 질문이 하나 있다. “만약 내일 아나키스트 사회가 열린다면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설혹 그것이 일정 기간 유지된다 해도, 최초의 혁명적 감수성과 각성 상태가 가시고 나면서 서서히 옛 모습이 다시 올라오지 않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필요하다. 특히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더욱 말이다.

아나키 상태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억압된 인민이 자유롭게 행동하며 모든 권위에 반항하는 것, 그리고 그를 억압하고 강제하는 모든 힘을 힘으로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다. 각 개인의 자유는 스스로가 이를 확보할 때에 만들어진다. 우리는 특정한 절차를 밟으라고 명령받는다. 우리는 특정한 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즐겁게 할 자유를, 타인도 도움으로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즐겁게 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강제로라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적들은 우리가 반란한 근거인 물적 자유를 빼앗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힘에 우리의 힘으로 구멍을 뚫을 자유를 가질 것이다. 혁명은 원리가 될 이상과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 힘에 관한 문제다. 한 가정에서건, 한 작업장에서건, 전 세계에서건, 이상의 의지가 되고, 힘이 물리적 우월성이 된다면, 혁명은 사실로 실현할 수 있다. 실질적 사실의 영역에서, 지역적 의지는 혁명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인민이 구체제를 수호하는 적대적 권력에 의한 금지나 복수를 걱정하지 않고 완전한 자유 속에서 서행할 수 있게 한다. 우리의 혁명이 정당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혁명들과 다른 것은, 우리 혁명의 결과는 공식적인 적군을 진압한 후 공식적으로 선언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혁명은 자유로의 길에서 있는 모든 개인의 반란의 개별적 승리의 총합으로 구성된 사실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가시적 보복들은 혁명에 영향받은 개인과 집단들의 혁명적 행동의 재개를 불러올 뿐이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아나키 상태의 유지는 지금까지 흔들린 적 없는 조직적 저항을 마주해야 하는 아나키의 쟁취보다 더 쉬운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점진적이고 당장은 감지할 수 없는 구악舊惡의 재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

우선, 구악들은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들은 분명히 감지할 수 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하자. 이들은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있는 자유로부터 배제되고, 누군가가 사회로부터 최대한을 뽑아내고, 타인의 것들을 최대한 가져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없다. 이들은 이러한 일하는 자를 거부하고, 이자에게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각자의 소유 중 어떠한 것도 제공하지 않을 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구악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할 힘이 있다. 이들은 실력을 행사할 힘이 있다. 이들은 그 힘을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은 자유의 정신에 영감을 받은 반란군이었거나, 태어나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익숙한 이들일 것이다. 그러한 이들이 잘못되었다 느끼

는것에대하여소극적으로남아있을가능성은거의없다. 결국이문제역시아나키를당장유지하는문제와같은방식으로해결될것이다. 그리고최악의경우라해도, 이구악이오늘날그러한것처럼일반적인체계가되지는않을것이다. 이구악은이미심각한투쟁을불러일으킨적이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인민에대한교육과통신설비를바라볼때, 문제가여기까지논의한것의반만왔다해도굉장한일일것이다. 현존체계의건설은더이상유효하지않은이유들에근거한것이었다.

원시공산주의는모호한무지에가려져있었다. 그리고인구에비례한자원은현재보다더많았지만, 그들은후대의과학이가져온생산수단이없었기에덜생산적이었을뿐아니라, 오늘날의인민들보다더쉽게이용당하였다. 자연적조건은코뮌주의적이었지만, 일부는그들의자원을(전반적으로환대의분위기가있어그것을강제하는의식의시기를제외하고는)타인과호혜적으로사용하기를거부했고, 그들이줄길권리를타인의손에내어주지않았으며, 심지어타인이그들의요구를모두충족할만큼의물자를제공하도록강제하기도했다.

이러한폭압에대한보호수단으로서부족적部族의소유가최초로등장하여자연스러운반동이되었다. 그리고이소유로부터군대가등장했다. 군대체계는족장제를만들었고, 족장제에서국가와사적소유가등장했다. 그리고이로부터봉건제가나왔고이윤창출이나왔으며, 이로부터봉건영주와상인들이나왔으며, 이로부터산업주의가나왔고, 이모든것들이합쳐지고통합된것이현대자본주의라고하겠다. 이과정에서국가는그성격이군대를부리는것에서토지를소유하는것으로, 상업을감독하는것으로, 산업적착취로, 대중을현혹하는것으로그성격을바꾸어가면서도계속하여부를흠치는것의동력이었다. 국가는강도질의기계이상이었던적이없다. 국가가행한다른것이있다면자유사상과언론, 행동을탄압한것뿐이다.

소유의전통은코뮌주의의본능을충분히말살하지못했다. 인민들은다른부족의소유를강제로수용하는것이무언가잘못된것이라여겼다. 하지만코뮌주의의본능이약화한것은분명하다. 인민들은다른사람에대하여의무도, 관심도가지지않게되었다. 이원인은다음과같다. 다른부족들로부터고립된소수공격적부족들이약탈자들을보내어다른이들을기습하고, 비공격적부족들의생존수단을모두빼앗는경우가있었기에, 결국비공격적부족들마저외부인들의의심과질투로바라보게되었다. 그리고이기적이고, 마지막한톨까지재화를빼앗거나, 동료의불운에서이익을얻거나, 자기약탈품을요새로지키는자들이가장살아남을가능성이높았다. 그리고나머지사람들의경우, 요새의이웃에살면서요새건설자들(가장이기적이고, 질투심넘치며, 의심많은자들이가장먼저요새를건설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 의본성과전통에순응한자들이살아남을가능성이더높았다.

그렇기에 인민들이 전리품을 위해 원시강도단에 가입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직접적인 폭력적 약탈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보라. 심지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방위군에 패배할 우려가 없는, 이를테면 아프리카를 보라. 약탈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대중이 보기에 불쾌한 것이다. 약탈의 난이도는 우리 조상들이 행할 때보다 쉬워졌지만, 가장 억압된 이 초차생활의 최저조건을 갖추기 쉬워졌다는 점에서, 인민의 물질적 문화와 구성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약탈은 역겨운 것이 되었다.

오늘의 조건은 과거와 매우 다르기에, 이전 사회의 조건을 만들어 내었던 역사적 발전이 반복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사악이 등장하여 새 시대의 폭압적 체제가 된다고 해도, 그 본성은 현대에 관측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인구 밀도, 거의 전세계적인 통신 등은 소유와 통치가 현재의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반복하는데 있어 분명히 대응 불가능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자유를 향한 열망이 단지 그 지지자들 사이에 형제애와 연대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정신적 성향 역시 바꾼다는 것은 드러난 사실이다. 그렇기에 모든 참된 아나키스트들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타인의 행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젊은 청년이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거나, 어머니가 자식을 고문하며 기쁨을 느끼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충동이 진화의 과정에서 천박하게 등장한 이기적인 간들보다 더 격렬하게 각성하여, 이기적인 간형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유전적으로 전파되어 더욱 견고하게 존재할 것이라 믿는다.

그렇기에 오늘날 인류를 억압하는 기구들이 온전히 청산되었을 때에 이전의 상태나 그와 유사하게 해로운 것이 등장할 것이라 의심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혁명의 성취가 인간 진보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 믿을 이유는 충분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승리하여 자유를 얻은 자들과, 그 후 수세대의 행복은, 투쟁하여 얻을 가치가 충분하다. 법령 따위로 후대의 조건을 조정할 수 없다. 우리의 후손들은 스스로 알맞은 조건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각각이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쟁취하여 낸다면, 후세의 자유와 행복을 건설하는데에 더 이상의 동기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